



제천 정방사는 해발고도 1,016m의 금수산 자락 신성봉 능선에 위치한 사찰로 662년 창건됐다. 보은 법주사 말사로 <동국여지승람>에는 '산방사'로 소개돼 있다. 1825년 지금의 불당을 보수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법당은 12칸, 요사는 5칸 규모다.

# 산능선 구름바다 속에도 관음의 염원이...

## 숲길이 아름다운 사찰 2 - 제천 정방사

무더위가 마음까지 답답하게 하는 한여름이 되면 더위를 피해 삼아 계곡으로 떠나고 싶어진다. 신록이 푸름을 자랑하는 자연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는 활기가 넘친다. 천년의 숲 속에 자리한 아름다운 사찰은 찾는 이들의 마음까지 가볍게 만들기에 자연스럽게 사찰을 찾게 된다.

제천 청풍호가 내려다보이는 금수산 자락의 정방사(주지 상인)는 무더위에 지친 이들이 찾기에 안성맞춤인 곳이다. 정방사로 향하는 길은 자드락길이라 불린다. 자드락길은 나지막한 산기슭의 비탈진 땅에 난 좁은 길을 칭하는 순 우리말이다.

청풍대교 직전에 충주 ES리조트를 지나면 정방사로 가는 좁은 산길로 들어선다. 옆으로 나있는 계곡이 바로 얼음골로 유명한 능강계곡이다. 정방사로 향하는 산길은 한낮에도 나무들이 우거져 시원함이 느껴진다. 맑은편에서 차라도 오면 피하기 힘든 외길이지만 피하는 장소가 한군데씩 있어 다행이다.

나무들이 우거지고 서늘해 왜 얼음골이란 이름이 붙여졌는지 이해가 가는 길이다. 시간이 많다면 천천히 걸어도 좋은 별스럽지 않은 산길이다.

완만한 오르막길을 끄덕대며 걷다보면 쿵쿵거리던 심장소리가 잦아들고 길옆을 살펴 볼 여유가 생긴다. 산 계곡의 습기를 머금은 나뭇잎도 들여다보고 사람 사는 세상 그럴듯 수도도 늘어나다. 이때는 송골송골 맑이 맺히지만 호반에서 시작해 산자락을 타고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하다.

산길을 재촉해 오르면 정방사 돌계단이 길손을 맞

이한다. 오른쪽에 무거운 짐을 실어 오르는 철제 리프트가 있을 만큼 계단은 다소 가파르다. 계단을 따라 자드락길도 끝날 무렵, 오랜 세월이 녹아든 이끼를 잔뜩 짙어진 큰 돌덩이가 버티고 서있다. 일주문을 대신해 천년을 버티온 돌이다. 마치 하늘로 향해 서있는 사천왕과 같은 기운을 느끼게 한다.

월악산 국립공원 북쪽인 금수산(1,016m) 산자락 신성봉(845m) 능선에 자리한 정방사는 기암석 절벽 밑 암벽에 붙어 세워져 있으며 가람의 배치도 다른 곳과는 달리 산 능선을 따라 일자로 죽 늘어져 있다. 커다란 바위 병풍에 기대어 선 작은 절집이다. 비좁은 자리에도 관음보살을 모신 원통보전, 나한전, 지장전, 산신각까지 자리하고 있으며 관음상에 오층석탑도 있다.

이런 정방사에는 재미있는 장건 설화가 전해진다. 정방사는 신라 문무왕 2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고찰이다. 당시 의상대사가 월주에서 공부할 때였다. 그의 제자인 정원 스님이 십수년간 전국을 다니면서 수행을 하다가 어디엔가 사찰을 지어야겠다고 마음먹고 의상대사를 찾아가 의뢰했다. 의상대사는 주장자(杖子)가 가다가 멈추는 곳에 절을 세우라며 그 멈춘 곳에 윤씨막을 찾으면 뜻하는 바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그 주장자가 현재 정방사 자리에 멈춰섰으며 정원 스님은 의상대사의 말처럼 산 아래 마을에서 윤씨 성을 가진 이를 찾았다. 마침 마을에 윤석사라는 사람이 있어 말을 하니 윤석사 또한 전날 밤 의상대사

가 꿈에 나타나 '내일 스님이 와서 요청하면 꼭 청을 들어주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정방사를 지었다. 그때 윤씨에게 의상대사가 한 '유구필응(有求必應·스님이 요청을 하면 반드시 응해주라)'이 현판으로 아직도 절에 걸려있다.

정방사의 이름은 정원 스님의 정(淨)과 아름다운 산세를 지녔다는 의미의 방(芳)을 써 붙여졌다. 하지만 이제 그 의미를 잊어버릴 정과 부처님의 진리의 방으로 해석한다고 한다. '세속의 무거운 짐을 부처님의 진리로 깨끗이 씻고가라'는 뜻으로 해석한다고 한다.

이런 뜻을 가장 잘 드러낸 곳이 정방사의 해우소다. 임구를 지나면 제일 먼저 길손을 맞이하는 곳이기도 하다. '큰 근심'과 '작은 근심'으로 쓰여 있는 팻말을 따라 안으로 들어서면 아찔하다. 용변을 보는 곳 아래로 산 아래 구름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해우소에서는 청풍호반도 내려 보고 굽이굽이 펼쳐져 있는 산등성이들이 이어져 보인다. 뱀새나는 재래식 화장실이지만 독특한 전망을 볼 수 있는 재미있는 발상이다. 용변도 버리다보면 심란한 마음도 절로 버려질 것 같다.

높은 곳의 산사답게 각 전각마다 운치 있는 이름이 붙어있다. 건물 아래로는 바람이 스쳐지나가고 흰 구름이 머문다는 청풍루(淸風樓)와 유운당(留雲堂)에서는 지친 발걸음을 잠시 쉴 수 있다.

한여름에도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과 아래로 펼쳐지는 구름과 호수를 둘러싼 산세의 풍경이 정방사를 찾은 길손들을 신선으로 만들어 놓는다. 겹겹의 능선들이 발아래 납작 엎드려 있고 구름아래 모습을 감춘 청풍호반은 부끄러운 듯이 언뜻언뜻 모습을 드러낸다. 한동안 벌어진 입은 다물 줄 모르고 그저 감

탄, 또 감탄만을 토한다. '이 곳에 이래서 절을 지었구나'는 생각이 든다.

정방사는 많은 신도들이 와서 참배를 하기에는 사격이 자그마하니 좁다. 좁은 길을 따라 오르면 관음보살을 주불로 모신 원통보전과 16나한을 모신 나한전이 있다. 원통보전 뒤편의 바위는 '의상대'라고 불린다. 양양 낙산사의 의상대와 의미가 같다.

의상대 바위의 기세를 따라 옆으로는 산신각과 지장전, 관음보살상이 서있다. 역시 의상 대사 설화가 전해지는 낙산사의 해수관음상과 닮은 관음보살상이 바라보는 곳에는 운해(雲海)가 펼쳐진다. 일망무제(一望無際)다. 저 멀리 청풍호를 비롯한 산 능선, 구름이 바다와 같이 펼쳐진다.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이곳에 눌러앉고 싶다는 생각이 들까 덜컥 겁이 난다.

조금 더 자리를 옮기면 독특한 지장전이 위태롭게 서있다. 지장전 아래는 바로 깎아지른 아찔한 낭떠러지 암벽이다. 지장전 한쪽 벽면은 암벽으로 암벽에 선각한 석조지장보살상과 개금한 보살입상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구름이 일어나고 바람이 부는 풍광에 생각이 달아

나 버리면 나조차도 있을 듯하다. 덩그러니 풍경소리는 스스로가 누군지 모르고 울리는 듯하다. 시원스럽게 펼쳐진 풍광에 몸도 마음도 저절로 놓인다. 다시 뒤돌아 나오는 길, 원통보전 뒤편 의상대의 석간수가 참배로 지친 목을 축인다. 감로수 맛이 달고도 차다. 감로수로 목을 축이고 나오는 길 보전에 쓰인 주련의 글귀가 진한 여운을 남겼다.

고무고천환반저(高無高天環返低)  
담무담수심환목(淡無淡水深還墨)

높음이 하늘보다 높을 것 없으나 도리어 밑으로 돌아가고 맑음이 물보다 맑은 것 없으나 깊음이 도리어 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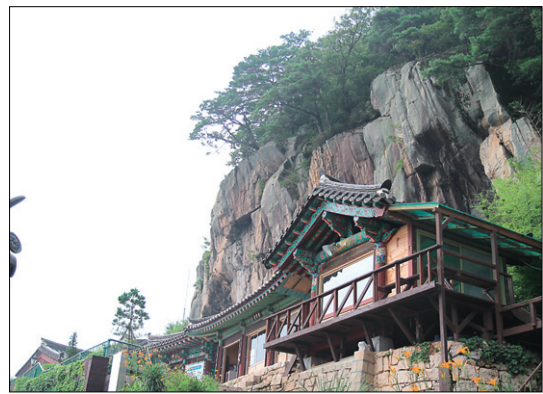
승거불지소무욕(僧居佛地少無慾)  
객입선원노불비(客入仙源老不悲)

수행자가 불교정도에 있으니 조금도 욕심이 없고 나그네가 신선사는 곳으로 들어서니 늙음이 도한 슬프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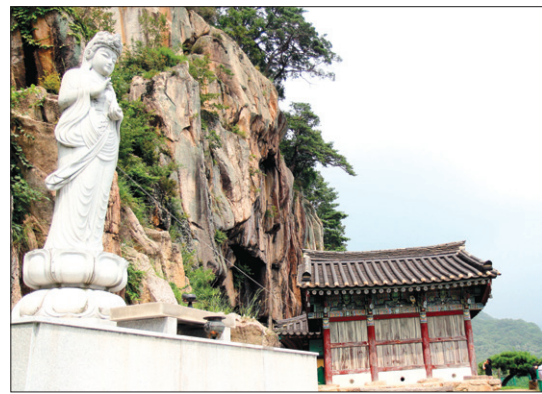
제천 정방사=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정방사 자드락길의 끝을 알리는 바위길 양쪽의 숲이 울창하다.



의상대 앞에 바람을 맞는 듯한 청풍루.



낙산사 해수관음상을 닮은 보살상

### 주변보기

#### <가볼만한 곳>

• 금월봉 휴게소 / 제천시 금성면 월굴리 / 043-642-6069 / 청풍호반도로를 달리다보면 나오는 곳으로 금월봉은 금강산의 일만이천봉을 닮아 '작은 금강산'으로 불리는 봉우리다.

• 능강숫대문화공간 / 제천시 수산면 능강리 산 6 / 043-653-6160 /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기러기나 오리 등 새를 높은 장대 위에 형상화한 솟대를 모아 전시한 공간으로 2007년부터 매년 솟대 문화 축제를 열고 있다.

• 청풍랜드 / 청풍면 교리 147번지 / 043-648-4151

• 청풍문화재단지 / 청풍면 물태리 산6-20/

043-641-5532

#### <숙박>

• 충주 ES리조트 / 충북 제천시 수산면 능강리 200-10 / 043-648-0480

빌라 내에 누워서 호수를 바라볼 수 있으며, 자연 그대로의 소나무를 살리기 위하여 천장에 구멍을 내고 암석이 마룻바닥에 돌출되게 하는 등 자연 친화적으로 건설된 종합 휴양 시설이다. ES리조트에서는 정방사까지 산책길이 나온다.

• 청풍리조트 / 청풍면 청풍호로 1798 / 043-640-7000

#### <식당>

• 황금가든 / 충북 제천시 청풍면 북진리 317/떡갈비 정식 / 043-647-6303



불안과 충동을 다스리는 여덟 가지 방법

# 조화로움

스티브 테일러 지음 | 288쪽 | 14,000원

“산책을 할 때,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볼 때,  
산을 오를 때 경험하는  
고요한 행복과 늘 함께할 수 있다면”

시간이 넉넉한데도 지나치게 빨리 걷는다,  
한 번에 두 쪽 이상 책을 읽기 어렵다,  
나도 모르게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고 있다...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할까?  
『조화로움』은 우리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불안과 충동을 잠재우고,  
고요한 평화와 존재의 조화로움을 오래 지속시키는 지혜를 선물한다.

불교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